

하나의 사역

5/16 월요일

아침의 누림

시 48:2

2 우뚝 솟아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인 북편 끝 시온산! 이는 크신 왕의 성이라네.

시 50:2

2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은 빛나신다네.

계 14:1

1 또 내가 보니, 어린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계 14:4-5

4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로 드리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 온 이들입니다.

5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흠이 없습니다.

시 74:2

2 옛적에 주님께서 사신 회중 곧 주님께서 구속하시어 유업의 지파가 되게 하신 주님의 회중과, 주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산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시 135:21

21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호와와 시온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시 53:6

6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 된 데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야곱이 크게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시 9:11

11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하신 일을 여러 백성 가운데 선포할지니

시 132:13-14

13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시고 그곳을 자기 처소 삼으시기를 갈망하셨다네.

14 “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 내가 이곳을 갈망하였으니 나 여기 거하리라.

구약에서는 시온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성이 있었다. 예루살렘은 산악 지대에 건축되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건축된 산들 중 하나였다. ... 교회생활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이다. 교회생활 안에는 한 무리의 이기는 이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 이기는 이들이 오늘날의 시온이다. 요한계시록 14 장에 따르면, 이기는 이들은 어린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1-5 절). 사실 성경의 예표에서 이기는 이들은 오늘날의 시온이다. 시온(이기는 이들)이 없이 예루살렘(교회생활)은 유지될 수 없고 지속될 수 없다.(활력 그룹의 훈련과 실행, 1 장, 5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시온은 거룩한 성인 교회의 고봉, 중심, 높아짐, 강화됨, 풍성함, 실재이다. ...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는 반드시 몇몇 이기는 이들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기는 이들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의 고봉이자 중심이다. 그들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의 높아짐, 강화됨, 풍성함, 실재이다. ... 시온인 이기는 이들은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곳, 중심, 실재이다.

오늘날의 시온인 이기는 이들은 거룩한 성(교회)의 완결을 위해 있다. 그들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건축을 완결하고 마감하며, 영원 안에서 완결된 새 예루살렘을 이끌어 올 것이다(계 21:1-2). 몸의 건축을 완성하기 위해 주님은

이기는 이들을 필요로 하시며, 몸의 건축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이런 이유로 성경의 끝부분인 마지막 책에서 주님은 이기는 이들을 부르신다. 오늘날 활력화되는 길은 이기는 이가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활력 그룹의 훈련과 실행, 1 장, 52-53 쪽)

예루살렘은 크고 시온은 작다. 시온은 예루살렘 의 요새이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관련된 것이 있을 때마다 시온이 언급된다. ... 구약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관계에 대해 말할 때마다 예루살렘의 특징들과 생명과 축복과 세워짐이 시온에서 온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열왕기상 8 장 1 절에서 장로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언약궤는 시온에 있다. 시편 51 편 18 절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신다고 말한다. 시편 102 편 21 절은 주님의 이름이 시온에 있고 주님께 대한 찬양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된다고 말한다. 시편 128 편 5 절은 주님께서 시온으로부터 복 주시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분다고 말한다. 시편 135 편 21 절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지만 시온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신다고 말한다. 이사야서 41 장 27 절에서는 말씀이 먼저는 시온에 선포되고 그런 다음 예루살렘에 전파된다고 말한다. 요엘서 3 장 17 절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실 때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한다.

오늘날 하나님은 실패한 교회 안에서 시온산에 서 있을 십사만 사천 명을 찾고 계신다(계 14 장). ... 이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기는 이들은 그들의 피를 쏟아야만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다. 교회를 대표하여 이기는 이들은 승리의 위치에 서고 또한 환난과 멸시를 겪는다.

하나님의 이기는 이들은 ...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옛 창조물에서 나온 모든 것을 십자가로 끊어 버려야 하며, 음부의 문들(마 16:18)을 처리해야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상처받게 하겠는가? 여러분은

주님께서 승리하시게 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패배하게 두겠는가?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모든 불순종을 처리하실 것이다(고후 10:6).(위치만 니 전집, 11 권, 부흥보(4), 144-14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활력 그룹의 훈련과 실행, 소개의 말, 1 장; 위치만 니 전집, 11 권, 부흥보(4), 34 기, 제 3 차 이기는 자 집회 메시지, 3 편*

5/17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계 21:2-3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골 4:2

2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엡 6:18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시 24:1-3, 7-8

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 세상과 그 안에 거주하는 이들이 다 여호와와 것이라네.
2 그분께서 그것을 바다 위에 놓으시고 강들 위에 세우셨기 때문일세.
3 여호와와 산에 오를 이 누구이며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이 누구인가?

7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 견디어 온 문들아! 들렐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8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시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다!

단 7:14

14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져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그분을 섬기게 되었다.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왕국이다.

우리는 시온을 포함하는 새 예루살렘을 완결할 때까지 교회생활 안에서 최고봉, 곧 오늘날의 시온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에 도달하도록 분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일하고 처신할 뿐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그 영을 따라 행하고 처신하는 하나님-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영을 따라 처신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한 무리의 하나님-사람들이 살아낸 이러한 생활의 총체이자 총합이다. 이러한 생활이 ... 이 시대 곧 교회 시대를 마감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와서 그분께서 왕국 시대 안에서 하나님-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차지하시고 소유하시며 통치하시게 할 것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석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2 장, 30 쪽, 5 장, 65-6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오늘날 교회 시대에 온전하게 되고 성숙에 이른 하나님-사람들은 교회들 안에서 시온, 이기는 이들, 활력 그룹들이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 새 예루살렘 전체가 시온이 될 것이다. ... 시온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곧

지성소이다. ...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일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치수는 입방체의 치수이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만 이천 스타디온이다(계 21:16). 그것은 지성소이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지성소는 성막에서도 성전에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방체였기 때문이다(출 26:2-8, 왕상 6:20).

이러한 계시의 빛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 외에는 이러한 고봉에 도달할 다른 길이 없다. ...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건축하고자 하시는 것은 시온, 곧 이기는 이들이다. ...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계시의 내재적인 실재이다. ... 주님의 회복은 시온을 건축하는 것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석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5 장, 66, 68 쪽)

땅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은 강탈당했다. 하지만 이 강탈된 땅에 한 지점, 한 산인 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 교회가 주님께서 온 땅을 차지하시러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자 교두보이다.

시편 24 편 7 절은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 오래 견디어 온 문들아! 들렐라. /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라고 말한다. 시온산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도록 반드시 우리의 문들을 열어 두어야 한다. 내가 정확하다고 믿는 한 논문에 의하면, 이 시편은 다윗이 증거를 시온으로 다시 가지고 왔을 때 쓰였다. 다윗이 시편 24 편을 쓴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쓴 것이다. 시온이 있었고 성문들과 문들이 있었다. 그리고 다윗은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 오래 견디어 온 문들아! 들렐라. /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 강하시고 능하신 여호와! /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다!”(7-8 절)라고 말했다. 이분 은 그리스도이시다. 증거는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증거가 들어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예표했다.

심지어 오늘도 ... 우리는 여전히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 견디어 온 문들아! 들리라.”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열려 있어야 한다. ... 만일 교회가, 만일 시온이 절대적으로 그분을 향하여 열려 있지 않다면, 어떻게 땅이 그분을 향하여 열려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렇다. 문들을 열자. 우리 모두 그분을 향하여 활짝 열자. 주님,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당신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이 작은 산인 시온산을 완전히 차지하십시오.”라고 반응하며 말해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9년, 3권, 시편에 계시되고 예표된 그리스도와 교회, 5장, 81-8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권, 섞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2, 5장

5/18 수요일

아침의 누림

삼상 1:11

11 한나가 서원하며 말하였다. “오, 만군의 여호와님! 만일 여호와께서 참으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어 이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여종에게 사내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의 일생을 여호와께 바치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왕상 9:3

3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서 한 너의 기도와 간청을 내가 들었다. 네가 건축한 이 집에 내가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어 거룩하게 하였으니,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은 계속 이곳에 있을 것이다.”

단 9:17-19

17 오, 저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주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황폐해진 주님의 성소 위에 비추어 주십시오.

18 오, 저의 하나님, 주님의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눈을 뜨시고 저희의 황폐함과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을 보아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것은 저희의 어떤 의로운 행동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의 큰 자비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19 오, 주님, 들어 주십시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들으시고 행동하여 주십시오! 오, 저의 하나님,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는 주님의 성과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롬 8:26-27

26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중보기도 하십니다.

27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 4:6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사무엘기상 1 장 1 절부터 20 절까지에는 사무엘 의 근본에 대한 말씀이 있다. 우리는 사무엘이 단지 그의 아버지 엘가나에게서 나왔을 뿐이라고 생각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나왔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경륜이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수행될지는 참으로 의문이었다.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이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제사장들이 되도록 정하셨지만, 그 제사장 직분은 진부해지고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하나님 의 마음의 갈망은 그러한 제사장 직분을 대치할 누군가를 얻는 것이었다.

그러한 사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엘가나와 한나를 결혼으로 묶으셨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에 따라 둘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단아 놓으셨으므로, 한나의 경쟁 상대 브닌나는 그녀를 몹시 화나게 하며 괴롭혔다.”(삼상 1:6) 이것으로 인하여 한나는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내아이를 주시면 그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은 한나가 한 기도와 약속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 한나는 임신하여 아이를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우리는 사실 사무엘의 근본이 어떤 사람이 아니었음을 본다. 하나님께서 실지 근본이셨고, 그분은 그분의 백성이 움직이도록 주권을 가지시고 은밀하게 동기를 부여하셨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 장, 18-1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타락한 이스라엘의 혼돈된 상태에서도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정하신 생명의 노선 안에 머물렀다. 생명의 노선은 하나님의 백성의 누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산출 하는 노선이다. 이 노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그분의 왕국을 얻으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메아리치듯 기도해야 한다. ... 한나의 기도는 이와 같았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원하셨지만, 그분께서는 “주님, 제게는 아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한나의 협력이 필요했다. 이러한 기도는 매우 인간적

이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신성한 움직임과 협력하는 것이었다.

한나가 그러한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쉽게 무언가를 하실 수 있었다. 왜냐하면 사람의 협력이 그분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 가운데서 의 그분의 움직임을 위해 그분의 갈망과 의도에 따라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에도 응답하셨다.

한나의 기도에도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움직임에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시다는 원칙과 일치했다. 이것이 육체되심의 원칙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노선 안에서 그분과 하나였던 한나가 움직이도록 동기를 부여하실 수 있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얻으실 수 있는 한, 그분은 이 땅에서 길을 얻으신다. 나는 우리 가운데 최소한 몇 사람이라도 오늘날의 한나가 되어 “주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품고 계신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생명의 노선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바란다. 하나님은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얼마의 사무엘들을 낳을 수 있는 많은 한나들을 필요로 하신다.

사무엘의 근본은 특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어머니와 그녀의 기도였다(삼상 1:9-18).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메아리치듯 말해 낸 것이었다.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이 신성한 움직임과 동역한 것이었다.

한나의 기도에도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은 하나님의 갈망의 성취를 위한 절대적인 나실인을 산출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베드로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 예수님은 나실인이셨다. 사실 생명의 노선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이 나실인이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의 나실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와 남편으로 삼고, 그분께 복종하며,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에 아무런 흥미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무엘상·하 라이프스타디, 2 장, 18-2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2 장; 위치만니 전집, 56 권, 복간 부흥보, 37 기, 하나님의 길들을 경배함; 위트니스 리 전집, 1954년, 1 권, 영문판, 418-421 쪽

5/19 목요일

아침의 누림

시 24:9-10

9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 견디어 온 문들아! 들어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10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계 11:15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계 11:17

17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큰 능력을 가지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계 12:10

10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단 2:44

44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들의 하나님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왕국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

통치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왕국은 이 모든 왕국을 부수어 끝내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와 많은 점에서 비슷하다. ...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갔고 사사들의 다스림을 받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 생활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졌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들을 통해 그들을 징벌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은 부흥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거듭 발생했다. ... 사사들의 능력이 강했을 때는 커다란 구원이 있었지만, 사사들의 능력이 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원수의 손에 빠졌다. ... 여기에서 우리는 커다란 원칙을 본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다스릴 방법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독립하면서 동시에 사탄을 향해 독립할 수 없다. ...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을 꿇거나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야 한다. 중간노선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완전히 잃어버린다. ...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의 백성은 계속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부흥이 있었다. (위치만 니 전집, 46 권, 특별 집회, 메시지 및 대화 기록(6), 172 장, 84-8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또한 교회의 역사이다. 우리가 뒤돌아볼 때, 교회가 아주 낮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 사람 위에 그분의 영을 내리심으로 그에게 위임을 주시어, 교회를 부흥되게 하신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는 또다시 하락하게 된다. 오르락내리락, 쇠퇴와 부흥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된다. 만일 내가 사사 시대 말기에 살고

있다면, 나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랄 것인가?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이미 지나간 역사는 다 알고 있고 오늘날 다시 낮은 수준에 떨어졌다.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다른 사사를 일으키셔서 다시 이 나라를 부흥시켜 달라고 구해야 하겠는가? 오늘날 나는 교회의 지체이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반복되는 부흥과 타락을 보았다. 이전에 나는 루터가 인도한 부흥과 그 후에 뒤따라온 죽음에 대해, 또한 웨슬리를 통한 부흥과 그 후에 뒤따라온 하락에 대해 읽어 보았다. 다비와 다른 형제들이 가져온 생명의 거대한 흐름과 그 후의 쇠퇴에 대해서도 읽어 보았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교회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역사를 되풀이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 새로운 것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무엘기상에 이르게 된다. 사사의 역사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왕국을 향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사들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왕국과 왕을 이끌어 오기 원하신다. 그분은 사사를 과도기로 사용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원하심은 다윗에게 있었고, 그분의 목적은 ‘왕’에게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기상의 중요성을 본다. 이 책은 길과 목표 사이에 삽입된 것이다. 이 책은 그 중간에 삽입된 것이며, ‘과도적’ 시기를 묘사한다. 그 책의 대부분은 대부흥의 시기도, 커다란 타락의 시기도 아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다. ... 사사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사사의 시대는 제한적이지만 왕국은 영원히 존재한다. 하나님의 갈망은 교회가 이러한 타락과 부흥의 순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많이 주고자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분의 왕을 이끌어 오기 원하신다.

사무엘기상은 왕을 이끌어 오는 사역을 나타내 보여 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사를 볼 수 없고

오히려 제사장이며 동시에 신언자인 한 사람을 본다. 우리는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주시하기가 쉽다. 그들은 과거 과도기 때에 하나님께 사용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참뜻 가운데서 뭉이 없고, 왕을 이끌어 오는 일과 관계없다. 하나님은 사무엘들을 얻기 원하신다. (워치만 니 전집, 46 권, 특별 집회, 메시지 및 대화 기록(6), 172 장, 85-8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진리 공과, 1 단계, 1 권, 10 과; 시편 라이프 스타디, 11 장

5/20 금요일

아침의 누림

계 12:5, 10

5 그 여자가 아들, 곧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10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계 12:11

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계 3:5-6, 12-13, 21-22

5 이기는 이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지적하셨다우지 않을 것이며,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6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13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21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22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없었다. ... 이 두 여인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원칙과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사역을 대표한다. 한나의 사역은 많은 자녀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만 왕을 이끌어 오는 것이었지만, 브닌나의 사역은 많은 자녀들을 얻는 것, 곧 많은 결과가 있는 사역이었다.

브닌나와 그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워치만 니 전집, 46 권, 특별 집회, 메시지 및 대화 기록(6), 172 장, 8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한나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 완전히 드러질 아들을 얻기 위하여 눈물을 흘렸고 금식했으며 주님께 기도했고 부르짖었다. 이 아들이 바로 왕을 이끌어 오는 사람이었다. ... 비록 여러분이 여전히 사사의 범주 안에 있다고 해도 축복을 얻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또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눈길이 그러한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만일 현시대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브닌나가 더욱 많은 자녀를 낳기 바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틀리지 않다면,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하나님의 눈길은 왕을 이끌어 오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자문해야 한다. 이 특별한 사역, 즉 하나님의 사역 안에 우리의 몫이 있는가? 어떤 이들은 부흥만을 생각한다. ... 그러나 사실상 더욱 중요한 사역은 바로 왕을 이끌어 오는 사역이다.

한나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으며, 브닌나가 비교하고 조롱하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길이 되었다. 한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박해와 조롱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할 준비를 해야 한다. ... 이러한 모든 사역은 반드시 시험과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반드시 우리 안에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보면서 먹고 마실 수 있지만, 여기에 이 사람은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동반자인 이기는 이들을 얻으시는 문제이다. 하나님은 한 백성, 곧 기도할 수 있고, 왕국을 이끌어 올 수 있는 이들을 얻기 원하신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이 출생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우리의 기도는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이 방면에서 무엇을 했는가?

사무엘의 출생에서 우리는 신언자들의 노선을 본다. 이 신언자들은 또한 왕을 이끌어 오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었다. 한나는 신언자인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많은 일을 하셨다. 그분은 과거에 그녀를 인도하셔서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 결과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과 모든 일을 한곳에 제쳐 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다. 그녀는 아들이 없이는 전진할 수 없는 그러한 지점에 이르렀다. 그녀는 반드시 아들을 얻어야만 하는 지점에 이르렀다. 사무엘기상 1 장에서 아들은 요한계시록 12 장에 나오는 사내아이, 곧 왕과 그분의 왕국을 이끌어 오는 이들이다. (워치만 니 전집, 46 권, 특별 집회, 메시지 및 대화 기록(6), 172 장, 87-88 쪽)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한 그분의 태도를 바꾸실 때, 그분은 시대적인 움직임을 가지신다. 모든 시대적인 움직임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이끌어 온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움직임은 요한계시록 12 장에 나온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종결하시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 오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목적은 평범하거나 일반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시대를 마감하시고 또 다른 시대를 이끌어 오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시대적인 도구를 얻으셔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이다.

사내아이의 휴거는 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 온다. 사내아이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게 한다. 사내아이와 휴거가 없다면, 하나님은 시대적인 움직임을 가지실 수 없다.

오늘날 하나님은 사내아이를 기다리고 계신다. 오직 사내아이가 휴거되어야만 요한계시록 12 장 10 절에 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문판 부록, 3-4, 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여자와 사내아이에 대한 이상, 3, 5, 7, 9 장; 이기는 자들, 1-2, 6 장

5/21 토요일

아침의 누림

삼상 1:10

10 한나는 혼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많이 울었다.

출 15:23, 25

23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마라라고 불린 것이다.

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 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여호와는 그곳에서 백성을 위하여 율레와 규레를 세우셨으며 또 그곳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삼상 1:10-11, 15, 20

10 한나는 혼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많이 울었다.

11 한나가 서원하며 말하였다. “오, 만군의 여호와님! 만일 여호와께서 참으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어 이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여종에게 사내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의 일생을 여호와께 바치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15 그러자 한나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의 주인님. 나는 영이 짓눌린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 앞에 내 혼을 쏟아 내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20 때가 되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며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출 15:23, 25-26

23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마라라고 불린 것이다.

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 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여호와는 그곳에서 백성을 위하여 율레와 규레를 세우셨으며 또 그곳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26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하여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계명을 청종하고 나의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벧전 2:21-24

21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셨습니다.

22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속임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3 그분은 욕을 들으셨지만 욕으로 되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계속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24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어 상처 입으심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 장 22 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삼 일 동안 걸었음'을 본다. 숫자 3이 부활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부활 안에서, 다시 말해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홍해에서 마라까지의 여행길이 정확히 삼 일이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 그들이 삼 일 동안 여행을 했다는 사실은 부활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한 묘사이다.

출애굽기 15 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마라의 쓴 물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 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출 15:22-25)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 주신 나무는 생명나무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2 장 7 절은 '생명나무'를 언급한다. 여기에서 '나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베드로전서 2 장 24 절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이다. 요한계시록 2 장 7 절에서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한 토막의 목재인 나무로 암시되어 있음-벧전 2:24) 부활하신(하나님의 생명으로 암시되어 있음-요 11:25)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가 쓴 물에 던진 나무가 생명나무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30 장, 37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지난해에 나의 아내와 나는 진정한 마라, 곧 매우 쓴 물의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영역 안에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 수 있었다. 우리는 쓴 물의 상황에 던져진 치료하는 나무를 풍성히 누렸다. 이 나무는 쓴 물을 달게 했다. ... 물론 아내와 나는 우리의 상황에 있는 쓴 맛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과 함께하는 치료하는 나무를 우리의 환경에 적용했기 때문에 달콤함을 누렸다. 이것이 부활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누리고 체험하는 길이다.

내가 쓴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은 종종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내가 십자가를 취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나를 나의 쓴 물의 환경에서 구원했고, 나의 쓴 환경을 치료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내 안에 쓴 것이 있음을 나에게 자주 보여 주셨다. 나는 나의 환경 안에뿐만 아니라 나 자신 안에 쓴 것이 있음을 보았다. 나는 또한 나의 전 존재에, 나의 영과 혼과 몸에 쓴 것이 있다는 것과 나의 존재 각 부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시시때때로 나는 이런 식으로 주님의 치료하심을 체험했다. 나의 상황이 치료되면서 나는 내적으로 치료되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존재 안에 있는 쓴 물의 쓴 맛은 다 달콤함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쓴 환경에 있고 우리 존재가 쓴 상태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되고 정직하게 우리 혼과 우리 마음을 주님께 쏟아 내야 한다. 이러한 기도가 왕과 왕국을 이끌어 올 이기는 이들을 산출한다. 우리가 '쓴 물'에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은밀하게 우리가 단지 우리의 내적인 치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출 15:26), 더더욱 이기는 나실인들을 산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이기는 나실인들은 하나님과 동역하여 왕과 그분의 왕국을 이끌어 올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 뛰어날 것이고(시 8:1), 세상의 왕국은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계 11:15).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30 장, 382-38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30 장; 윌트니스 리 전집, 1969년, 2권, 성경에 있는 생명에 관한 중대한 계시, 4 장

5/22 주일

아침의 누림

계 5:5-10

5 그러자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봉인을 뗄 수 있습니다."

6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7 그 어린양께서 나아오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습니다.

8 어린양께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을 때, 네 생물과 스물네 장로는 각각 수금과, 향들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들을 가지고 어린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9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들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고, 자신의 피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10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계 22:12,14, 16-17

12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 주겠다.

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걸음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샅별이다.”

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1021. 우리를 부른 주님 다시 또 부르신다

1 우리를 부른 주님 다시 또 부르신다
 주의 부름에 우린- 아멘 해
 타락된 교회는 다 안다고 생각하나생명은
 놓쳤다네- 이기세

(후렴)

이기세 이-기세 타락된 기독교를 회복하세
 자기 행위 버리고 분열의 교훈 떠나언제나 주를
 먹어- 이기세.

2 먹는 건 우리 운명 먹는 건 주의 회복
 먹음으로 원수를- 깨뜨려
 와서 생명 누리세 교리 분쟁 떠나서주님을
 먹음으로- 이기세

3 교훈으로 우리 혼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목적을- 못 이뤄
 주님을 먹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주를 온전히
 먹어- 이기세

4 사내아이 원하면 주 모셔 내리려면
 모든 부족함 중에- 주 먹세
 주가 갈망하시는 사내아이와 교회주가 감탄할
 신부- 되려면

악보 / 음악 (한 1273 / 영 1273)

<http://khymnal.org>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석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2, 5 장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 2 장
 시편 라이프 스타디, 11 장
 이기는자들, 1-2, 6 장

2022. 5. 16 ~ 2022. 5. 19

단체로 읽을 말씀: “교회의 정통”, 5 장